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대우조선해양, 인도네시아 마지막 잠수함도 가뿐히

대우조선해양이 국내 최초로 해외에서 수주한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 중 마지막 함도 성공적으로 인도했다고 보도됨.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수주한 바 있음. (선박뉴스)

### 8개 해운국, IMO에 탄소세 도입 제안

해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이 국제해사기구(IMO)에 50억달러 규모의 IMO해사연구기금(IMRF)을 설립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함. 또한 선박연료의 종류에 따라 탄소세 규모도 차등화하자고 주장했는데 기존 벙커유(중유)는 1톤 당 2달러,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LNG는 1.7달러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함. 8개국은 IMRF가 설립되면 유럽연합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한 배출권거래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선박뉴스)

### Zodiac Maritime scales up VLGC fleet with three newbuildings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했다고 공시한 VLGC 3척에 대한 발주처는 Zodiac Maritime이라고 보도됨. LPG이중연료추진시스템을 갖춘 해당 선박은 척 당 선가 약 7,800만달러라고 보도됨. (TradeWinds)

### Shell 'in a rush' to wrap up next LNG bunker vessel newbuilding

네덜란드의 슈퍼 메이저 Shell사가 LNG벙커링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됨. 현재 12,000CBM급 LNG벙커링선에 대하여 선주사와 협의 중이며 조만간 한국 조선사가 해당 선박을 수주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 Novatek cleared for construction of Russian LNG hub - but hurdles lie ahead

Novatek이 러시아 극동지역 Kamchatka 반도지역에 LNG터미널을 건설하는 건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됨. Novatek은 LNG터미널에 대한 가동예정일로 2023년을 설정했다고 알려짐. 해당 터미널은 서부 시베리아지역에서 생산된 LNG를 쇠빙형LNG선을 통해 수출하는 주요 거점이 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Upstream)

### Bids are in: Contractors submit offers for \$1bn-plus project offshore Qatar

최소 8개의 Global EPC업체들이 Qatar North Oil Company(NOC)의 3번째 Gallaf 프로젝트 해양공사에 입찰했다고 보도됨. NOC는 Qatar Petroleum과 프랑스 Total사의 합작회사로 공사 규모는 10억달러를 상회한다고 보도됨. (Upstream)